

# 전시체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세대별 양상과 민주주의\*

변은진\*\*

---

## < 목 차 >

---

- I. 머리말
  - II. 일제의 전시수탈과 ‘불온’한 전북인
  - III. 3.1운동 이전 전통적 유학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 IV.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 V. 세대별 성격과 민주주의적 한계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일제말 전시체제기(1937~45)는 흔히 일제의 침략전쟁과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이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스며들어간 암울한 민족말살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정도의 차이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향이 조선인의 자본주의적 삶과 근대적 의식세계에 파시즘적 요소를 내재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파시즘적 요소의 내재화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적 요소의 약화 내지는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이 글은 2019년 10월 11일 전북사학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때 발표한 원고를 보완 수정하였음.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퇴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가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세대별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제말 전시체제는 한편으로는 암흑의 시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된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될지, 전후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될지를 결정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독립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전승국 대열에 낀 일본의 식민지 조선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미·영·소·중 등과 전쟁을 벌이면서 점차 敗戰의 가능성이 높아져간 전시체제는,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과 해방,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항일독립운동 최고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희망적인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해외 독립운동진영에서는 일제패망을 전망하고 조선독립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와 일본에 있던 조선민중들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이 암울한 민족말살의 시기를 희망적인 독립 실현의 시기로 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국내와 일본에서 370건 정도 확인되는, 청년학생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규모 비밀결사운동이다.<sup>1)</sup>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8건 정도의 비밀결사가 확인되는데, 이 외에도 전북 출신자들 즉 ‘전북인’이 서울이나 도쿄 등지에서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례는 더욱 많다. 1945년에 작성된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에 131명의 전북인 명단이 수록되어 있던 점도<sup>2)</sup> 이를 반증해준다.

1) 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선인, 2018)에 전체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총 368건의 비밀결사운동이 소개되었는데, 이밖에 전북 지역을 조사하면서 2건을 추가하여 여기서는 370건으로 서술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제당국에 발각되어 체포된 사례에 국한된 것임을 밝혀둔다.

2) 特高科,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1945), 일본 와세다대학교도서관 소장 미군물수마이크로필름 R.60. 이 자료는 당시 ‘조선인내지도항제도’의 폐지에 따른 취급 협정에 의해 1945년 3월경 국내 각 도별로 작성해 일본으로 발송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131명)·전남(210명)·충남(83명)·경남(44명)·함북(279명) 등 5개 도만 확인되는데, 총 747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요

이 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주도층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청년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드러난 교육기회의 불균등, 취업 과정과 취업 후 직장 내에서 느끼는 민족차별, 渡航 제한 등 실제 생활 속에서의 민족차별을 매개로 민족적 반감을 키웠다. 뜻 맞는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감정을 확인하면서 함께 민족적 성격의 서적을 읽고 정세를 토론하며 민족의식을 심화시켜갔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규모의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화하여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실력을 양성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제당국이 자신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청년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영원히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했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조선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만연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II장에서 전시체제기에 조선민중이 항일 의지를 가지고 독립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꿈꾸며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시기 전시수탈과 인력동원이 늘어간 데 대한 전북인의 불안과 불만 고조,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일제패망과 조선독립 등에 관한 ‘불온’한 언동의 표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VI장은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현황과 그 세대별 비교를 시도한다. 시대에 따라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여럿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참여주체들의 지식 습득의 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식 근대 보통교육이 확대됨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전통적인 漢學과 儒學을 공부한 기성세대와 그 이후에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세대로 구분하여 파악해본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흔히 ‘민족종교’라 불리는 甌山敎나 普天敎의 본산으로서 전시체제기에도 이러한 ‘類似宗敎’<sup>3)</sup> 관련 비밀결사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중장년층의

시찰인’은 원래 1911년 일본 내 사회주의자 단속에서 시작된 것인데, 『特別要視察人視察內規』에 따르면 이 외에 ‘조선인으로서 排日 사상을 가진 자’도 포함되었다(荻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せきた書房, 1984), 97쪽).

3) ‘유사종교’란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종교정책에 따라 군소 종교단체를 폄하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최근에는 주로 ‘신종교’라 칭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文智炫,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고가 신종교단체』(『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참조.

전북인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3.1운동 이전 유교적 전통교육 세대와 이후의 일본식 제도교육 세대의 저항의식과 비밀결사운동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특히 8.15 이후 국가건설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민주주의적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일제의 전시수탈과 ‘불온’한 전북인

일제의 전시수탈은 크게 인력 수탈과 물자 수탈로 대표된다. 인력 수탈은 지원병·징병 등으로 대표되는 병력 강제동원과 모집·알선·징용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력 강제동원을, 물자 수탈은 흔히 供出이라 불리던 각종 물자에 대한 수탈과 배급 통제를 말한다. 이러한 전시수탈에 대해 민중들은 대체로 내면적으로는 강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불만은 소극적·적극적 저항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는 이 시기 전북지역에 비밀결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자 그 출발점이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일제당국의 전시수탈을 둘러싼 전북인의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1938년 2월 2일 勅令 제95호로 공포되어 그해 4월 3일부터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반도의 일본화 즉 內鮮一體의 구현”이라는<sup>4)</sup> 통치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병력 강제동원이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원율이 높아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938년도 지원자 2,946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303명으로서 전남(518명)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남(292명)과 경북(252명) 순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 3개 도는 1930년대 이래 인구 200만 명을 훌쩍 넘는 지역이었고 전북은 1940년 현재 150만 명 정도였음을 감안해보면,<sup>6)</sup> 전북의 지원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전북지역 관공서와 중등학교의 지원병 독려가 전시체제 초기부터 강하게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sup>

4)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1940), 803쪽.

5) 「第74回帝國議會說明資料」,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제2권(不二出版社, 1994), 55쪽.

6) 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이연출판부, 2004), 94쪽.

1942년 5월 9일 발령된 징병시행준비명령에 따라 1943년 8월 1일부터 1944년 8월 20일까지 제1회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sup>8)</sup> 당시 징병 신체검사의 실시상황을 보면, 전체 237,609명(일본인 15,314명 포함) 중 전북에서는 총 14,767명(일본인 536명 포함)이 신체검사를 받았다.<sup>9)</sup> 전북의 조선인 수검자 14,231명 중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미취학자가 7,87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전국 12개 도 가운데 미취학자가 절반이 넘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강원·경남·경북·충남·충북 등 6개 도였다. 징병제 실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조선인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전북의 경우 이들 가운데 5,108명이 자신은 일본어를 이해한다고 답변했지만,<sup>10)</sup> 그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문제만으로도 조선인이 ‘천황의 군대’에 징병으로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실제로 전체 징병적령자 가운데 약 96%가 신체검사를 받았고 4%에 해당되는 12,905명은 불참하였다. 이 가운데 질병 등을 제외한 소재불명 불참자가 6,228명으로 절반 정도나 되었다. 공식발표 전부터 징병제 실시에 대한 풍문이 많이 돌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대부분 ‘징병 기피자(거부자)’로 볼 수 있다.<sup>11)</sup>

다음으로 ‘모집’, ‘官 알선’ 등을 내걸고 추진되던 노동력 동원도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층 강화되다가, 1944년부터는 1939년에 공포한 ‘국민징용령’을 시행했다. 이는 완전히 전면적인 강제동원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1944년 일제당국의 이른바 ‘노무관계사범’ 단속 상황을 보면, 1944년 1~6월에 총 1,643건, 1,897명이 저촉되었다.<sup>12)</sup> 이후 노무동원 위반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경무국 경제경찰과에

7)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941.12)에 따르면, 1941년도 지원자 동기 조사에서 전체 145,046명의 지원자 가운데 ‘官 宗용’에 의해 지원했다고 응답한 청년이 79,672명으로서 50%를 훌쩍 넘었다.

8) 大江志乃夫 編, 『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不二出版, 1988), 433쪽.

9) 「第36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12).

10) 「昭和19年度朝鮮の徴兵検査に於ける朝鮮人壯丁の學力及未就學者の國語理解狀況調」, 水野直樹 編, 『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4(柏書房, 1998), 212-213쪽. 전남의 미취학자 11,220명 가운데 4,105명만이 일본어를 이해한다고 답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11)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형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선인, 2013), 127쪽. 이미 1939년경부터 “각지의 근로보국대원은 조만간 戰場으로 보낸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갔다.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外事月報』 제1호(1939.7), 20쪽.

12) 警務局 經濟警察課, 『昭和19年上半年國民徵用等勞務事犯取締狀況表』.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서 1944년 10월 16~25일을 ‘노무동원 위반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한 아래의 「결과표」를 보면, 불과 3~4개월 만에 위반자 총수는 2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검거나 훈시 또는 수배 증으로 사법적 조치를 받은 것은 절반을 넘는 12,100명이었다. 상반기의 1,897명에 비하면 6~7배나 증가한 것이다.

〈표 1〉 노무동원 위반자 일제단속 결과표(1944.10.16.~25)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계
국민징용령	1,004	56	205	1,006	1,558	845	641	524	292	202	307	79	7	6,726
징용출두 불응자	3,097	165	485	2,627	1,408	4,652	1,897	851	206	222	524	295	39	16,440
계	4,101	221	690	3,633	2,966	5,497	2,510	1,375	498	424	831	374	46	23,166
검거	146	36	52	129	165	388	150	165	41	15	110	16	2	1,374
훈시	300	69	60	599	769	140	528	111	134	15	155	129	4	2,879
수배	·	59	402	1,046	2,032	1,104	1,832	264	109	284	566	229	29	7,847
계	446	164	514	1,774	2,966	1,632	2,510	540	284	314	831	374	35	12,100

\* 警務局 經濟警察課, 『昭和19年上半期國民徵用等勞務事犯取締狀況表』

위 표에서 전북지역을 보면, 1944년 10월 현재 국민징용령 위반자가 1,006명, 징용명령을 받고도 출두하지 않은 불응자가 2,627명으로 총 3,633명의 노무동원 위반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민징용령 위반자는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징용출두 불응자를 포함한 전체 위반자 수도 경북과 경기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총 12,000여 명의 ‘노무관계사범’ 가운데 불잡힌 인원(검거나 훈시로 표시된 인원)은 4,000여 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0여 명에 달하는 수배자는 적극적인 ‘징용 기피자(거부자)’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민중에게 징용제가 얼마나 위압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 중 일부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산속 등에 숨어 지내면서 해

212건, 검거 인원은 246명이며, 나머지는 사법부에서 훈시를 받고 풀려났다.

방을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전북의 징용 거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普光黨 등에 참여하여 무장독립을 준비했을 것이다. 보광당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비밀결사인데, 茂朱의 德裕山과 長水의 長安山도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 중 하나였다.

한편 엄격한 통제 아래서도 전북의 학생들은 강제근로동원 등에 불만을 품고 盟休를 일으켰다. 1938년에는 扶安公立農業實習學校 학생 37명이 교사의 엄격함과 난폭한 언어와 노동의 강제에 저항하여, 1941년에는 完州의 伊西·飛鳳公立國民學校 학생 40명이 연일 계속되는 노무작업에 불만을 품고 맹휴를 일으켰다.<sup>13)</sup> 또 全州農業學校 학생들은 1942년 2월 담임교사 佐藤를 배척하는 맹휴를, 10월 교무주임 寺川の 차별과 구타에 항거하는 맹휴를 일으켰다. 이 맹휴에는 뒤에서 살펴볼 槿花會라는 비밀결사가 개입되어 있었다.<sup>14)</sup>

이상과 같은 인력 수탈뿐만 아니라 강제 供出로 대표되는 물자 수탈은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이었다. 1939년 이래 계속된 가뭄에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어 공출의 품목도 다양해지고 통제도 더 강화되었는데, 이 모든 부담은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가해졌다. 전북에서 1942년 5월 이후 민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국민학교 5~6학년생 113명에게 무기명으로 父兄의 언동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자. 어린 학생들의 답변 가운데 도 당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sup>15)</sup>

- |   |    |
|---|----|
| 1) 비가 오지 않아 지을 수 없는데도 면사무소에서는 공출할 것이므로 농업이 재미없다 | 6  |
| 2) 비가 안와 쌀을 지을 수 없으면 전쟁을 못 하게 되어 적 비행기가 올 것이다   | 1  |
| 3)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다, 면에서 배급을 주므로 그 편이 오히려 낫다       | 1  |
| 4) 온 힘을 다해 경작해도 면사무소가 전부 가지고 가므로 백성은 싫다         | 5  |
| 5)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 가능한 한 면사무소에서 내간다고 하니까          | 1  |
| 6) 면에서 공출 공출 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다                    | 1  |
| 7) 이기든 지든 좋다, 속히 전쟁이 끝나면 좋다                     | 2  |
| 8) 전쟁 때문에 농민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좋다        | 15 |

13) 「昭和13年後半期朝鮮思想運動概觀」(朝鮮軍 參謀部) 및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4) 全北地域獨立追慕塔建立推進委員會, 『全北地域獨立運動史』(1994), 506-507쪽 및 512-516쪽.

15) 總督府 法務局 經濟警察課, 「經濟治安週報」63(1942.7.20.), 『經濟治安日報綴』(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 조사 내용에 대해 전라북도당국은 “시국인식이 불충분”한 게 너무 많아서 ‘내사 중’이라고 총독부에 보고했다.

1942년 봄 여름 무렵 전북의 민중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간 이야기 역시 공출과 배급,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평범한 일반 농민들은 전쟁의 성격이나 승패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쟁과 파시즘으로 조성된 정세와 정책들에 대해 전북의 농민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불안한 심리와 불만의 정서를 표출해갔다. 이러한 불안과 불만은 경우에 따라 ‘不穩’한<sup>16)</sup> 언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反日·反戰·反軍의 내용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담고 있는 ‘불온’하고 ‘不敬’한 造言飛語,<sup>17)</sup> 流言蜚語(流言飛語), 군사기밀 누설, 낙서나 삐라 등을 말한다.

1939년 유언비어 단속 과정에서 검찰 처분으로까지 넘겨진 건 가운데 全州地方法院 관할 건수는 총 9건에 9명이었다. 전국의 11개 관할지법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총 237건에 360명이었으니, 신의주지법(4건, 8명) 및 평양지법(8건, 10명)과 함께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sup>18)</sup> ‘불온’한 낙서도 전시체제가 ‘불온’ 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일제당국은 단속을 강화해갔다. 예컨대 1938년 12월 1일 군산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방화데이를 맞아 ‘思想報國 철저책’의 하나로 府內의 판벽, 변소, 기타 공공 집회장의 낙서를 일제히 검사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sup>19)</sup> 1939년 1월부터 1940년 6월 사이에 발견된 총 58건의 ‘불온낙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관내의 3건은 다음과 같다.<sup>20)</sup>

16)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온’의 의미는 ‘편안하지 않다’ 혹은 ‘순조롭지 못하다’는 의미로서 대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들어 이러한 전통적 용례는 사라지고 “제국에 반대하는 활동 전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뜻”으로 급격하게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3.1운동 이후 ‘불온문서’ 등의 표현으로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大東文化研究』 72(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449쪽 및 455쪽].

17) 野村 대구헌병대장의 언급에 따르면, ‘造言’은 거짓으로 어떤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 ‘飛語’는 상호간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京城日報』, 1937.9.10.).

18) 「造言飛語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21(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39.12), 47-60쪽.

19) 『東亞日報』 1938.12.8.

20) 「不穩落書及ピラ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24(1940.9), 7-8쪽.

〈표 2〉 전북지역의 ‘불온’ 낙서 사례

장소	‘불온’ 낙서의 내용	발견일시, 도구
김제의 崔中敏(한약제상) 집 감나무	天皇陛下御命	1939.8.1, 毛筆
호남선 김제역 구내 공중변소	鮮亡於日本, 日亡於支那, 胡亡於朝鮮	1939.10.10, 연필
진안의 음식점 金璟海의 집 변소	이완용 식당	1939.11.15, 연필

태평양전쟁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이 미·영·소·중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經濟戰에서 결국은 패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북의 농촌마을에까지 퍼져갔다. 1942년 6월 淳昌署에서 청년훈련소 생도들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당국의 경제통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과 ‘불온’한 언동을 조사했는데,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일본은 전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가 라고 부락 노인들이 말했다”라는 답변에서 알 수 있다.<sup>21)</sup> 또 高敞의 농민 李判五(1918년생)와 宋漢龍(1919년생)은 1944년 5월 초순경 강제 근로동원 도중에 잡담하면서 “아무리 안달해도 이 전쟁은 일본이 패한다.”고 얘기했다가 징역 4월 언도받는 등<sup>22)</sup> ‘일제패망 인식’이 점차 일반화되어갔다. 그런데 1943년 8월 일본 東京에서 苦學을 하던 朴天圭(정읍, 21세)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동포가 군수공장에서 일하여 兵器를 만들어 보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sup>23)</sup> 조선인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물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해 청년들이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3.1운동 이전 전통적 유학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에 태어난 기성세대는 주로 3.1운동 이전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전시체제기에는 40-60대의 농민으로 살아간 세대가

21) 法務局 刑事課, 『經濟治安日報』 60(1942.6.29).

22) 『判決文』(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 1944.10.9.); 조규태, 「일제강점기 전북 고창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26(2012), 153쪽.

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1977), 272쪽.

다.<sup>24)</sup> 일제강점기 공문서에는 이들이 대부분 ‘無學’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몇 년간 한문을 공부한, 말하자면 전통적인 漢學과 儒學을 습득한 경우가 많다.

중일전쟁이 장기화 되고 해마다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중장년층은 대체로 이른바 類似宗教에 의존해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전시체제기에 일제당국은 이러한 성격의 결사들도 민족의식에 기초한 항일조직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당시 이러한 ‘유사종교’ 관련 결사가 여럿 존재했는데,<sup>25)</sup> 이 가운데 비교적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전북의 神人同盟과 朝鮮建國團이었다. 여타의 유사종교 관련 결사들에 주로 ‘보안법 위반’이 적용되었던 데 반해, 이 두 조직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이 적용된 데서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유사종교’ 관련 결사가 명확히 ‘조선독립’을 표방하면서 항일비밀결사의 성격을 띠고 활동한 것 자체가 전시체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은 모두 甌山敎와 普天敎를 기반으로 한 ‘민족종교’ 계통의 비밀결사였다. 보천교는 원래 姜一淳(姜甌山)이 창시한 증산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강일순이 사망한 후 제자인 車京錫이 정읍에 본부를 두고 1911년에는 仙道敎(뒤에 太乙敎), 1921년에는 普化敎로 고쳤다가 1922년 보천교로 개칭하여 재탄생하였다. 하지만 교주 차경석이 자신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1925년 時局大同團을 조직하는 등으로 친일행위를 벌이자, 그 내부에서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분파가 생겨났다. 그러다가 1936년 차경석이 사망한 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에 따라 교단은 해체되었다.

이후 1938년 4월 보천교도 鄭寅杓가 金堤의 金山寺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결성한 비밀결사가 신인동맹이다.<sup>26)</sup> 정인표는 각지의 증산

24) 普天敎 관련 독립운동으로 기소된 301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도 1920년대에는 20-30대가 다수이나 1938-45년에는 40-50대가 다수라고 보았다[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관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2016), 438쪽, <표2> 참조]. 이 안후상의 연구에는 아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북의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5) 각종 자료에서 ‘××교 사건’으로 칭해진 것은 대부분 유사종교 관련 조직이다. 예컨대 益山을 중심으로 한 ‘黃極敎 사건’ 등을 들 수 있다[『思想彙報』續刊(1943), 6쪽].

26) 이하 신인동맹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朝鮮刑事政策資料』(高等法院

교 계열의 교도들을 방문하여, 彌陀佛의 靈을 받은 자신이 장차 衆生을 濟度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특히 중일전쟁에서 일본인은 모두 전사하여 조만간 멸망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정감록』에 나오는 鄭氏의 정통으로서 조선을 독립시켜 왕이 될 것이니 자신과 함께 행동하면 이후 관리로 등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동지를 규합해간 결과, 김제를 중심으로 반경 15리 19개 郡 내에 구역을 정하여 각 군에 책임자를 비롯한 80여 명의 동지를 확보했다. 이들은 하부조직을 꾸리고 운동자금 조성에 노력했으며, 독립을 목적으로 한 政治要綱을 함께 토의 연구했다. 또 동맹 내부에 組를 편성해 경찰서 습격 등 무장행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1940년 12월 김제경찰서의 지휘 아래 정읍·이리·군산·부안·전주 등 각 경찰서에 다수가 검거되었고, 정인표를 비롯한 보천교도 42명이 구속되었다.<sup>27)</sup> 신인동맹 관련자로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을 출생연도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표 3> 神人同盟 참여자 중 서훈자

이름	출생연도	본적	판결 및 결과	서훈
정동원(鄭東源, 鄭東勳)	1881	전북 고창	재판 중 가석방 순국	애족장(2006)
정창묵(鄭昌默, 鄭振奉)	1884	전북 고창	징역 2년 6월	애족장(1997)
오귀룡(吳貴龍)	1885	경북 문경	징역 2년 6월	애족장(2005)
박재춘(朴在春)	1886	전북 진안	징역 3년	애족장(1997)
양인문(梁仁文, 梁君五)	1887	전북 진안	징역 2년 2월, 가석방 순국	애족장(2002)
정공일(鄭公一)	1890	전북 고창	징역 5년	애족장(1997)
서보인(徐輔仁, 徐政)	1895	경북 달성	징역 2년	애족장(2004)

檢事局, 1941); 『思想彙報』續刊(1943); 『井邑抗日運動史』(井邑文化院, 1994).

27) 이들은 약 1년 반 동안 고문 취조를 받은 후 1942년 4월 11일 28명이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또 다시 약 1년 반이나 지난 1943년 10월 6일에야 다수가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28) 서훈자를 중심으로 파악한 이유는 참여자의 생몰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세대별 성격을 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하의 다른 사례들도 동일한 이유에서 서훈자를 검토했다.

이진호(李鎭浩)	1895	전북 정읍	징역 5년, 형집행정지 출옥	애족장(2008)
장득원(張得遠)	1897	전북 정읍	징역 2년	애족장(1997)
정인표(鄭寅杓)	1898	전북 완주	징역 8년	애족장(1997)
여성백(余性白)	1899	전북 정읍	징역 1년 6월, 옥중 순국	애족장(1997)
정휴규(鄭休圭, 鄭休哲)	1904	전북 고창	징역 3년	애족장(1997)
김재영(金在永, 金在德)	1908	전북 고창	징역 1년 6월	애족장(1997)

\*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다음으로 조선건국단은 신인동맹이 한창 활동 중이던 1940년 4월 정읍을 중심으로 金彦洙(金千日) 등이 조직한 결사로서 그해 11월경까지 활동했다.<sup>29)</sup> 이보다 앞선 1938년 음력 11월경부터 1940년 3월까지 김언수는 보천교·侍天教·증산교 계통을 합일하는 신흥교단을 창설하기 위해 黃河龍·李定鉉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教徒를 모집했다. 이를 토대로 1940년 5월 10일(음력 4월 4일) 정읍 황하룡의 집에서 각도 대표 14명이 모여 신흥종교를 창설하고 비밀결사 조선건국단을 조직했다. 이 자리에서 김언수는 “新 종교는 崔水雲을 교조로 하는 시천교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 두 教義에 따라 儒·佛·仙의 三教를 통합한 것으로, 신도 1만 2,000명에 대하여 신통력을 가지는 道通君子가 되기 위해 수양을 시킨다.”며 창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래 보천교도였던 김언수는 1939년 1월 금강산에 머무르면서 “이 산의 일만 이천 봉의 신령스러운 신이 구 보천교도에게 옮겨와 이들을 도통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東經大全』의 “마상의 한식은 연고지가 아니요, 우리 집에 돌아가서 옛일을 벗하고 싶네(馬上寒食 非古地 欲歸吾家 友昔事)”라는 구절을 인용해 독립을 염원했다. 또한 1942년 2월 21일 寒食日을 조선 건국의 날로 삼겠다고 기원하기도 했다. 금강산을 靈峰으로 하여 각도에 六任八奉의 직제를 두기로 하고, 조선건국단 결성 당일에

29) 이하 조선건국단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判決文(平山永和 外)」(京城地方法院 1942.9.22.); 「判決文(黃河龍)」(全州地方法院, 1943.10.30.); 『朝鮮刑事政策資料』(1941), 87-89쪽;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6(國史編纂委員會, 1993).

참석한 14명을 각각 6임과 8봉에 임명했다. 이들로 하여금 각자 지방에 내려가 지방간부로 6임과 8봉을 임명토록 하고, 이들이 다시 해당 도에서 1,200명씩 모집하여 총 12,000명의 동지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후 尹慶叟(청진, 40세), 李順道(경성, 60세) 등 이날 임명된 6임과 8봉은 각기 담당할 도를 중심으로 동지와 운동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다가 1940년 12월 함경북도경찰부를 위시한 각도경찰부에 총 565명이 검거되었다.<sup>30)</sup> 조선건국단 관련자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朝鮮建國團 참여자 중 서훈자

이름	출생연도	본적	판결 및 결과	서훈
이정현(李定鉉)	1880	경기 용인	징역 3년, 옥중 순국	애족장(2015)
신영화(申永和, 申昌原)	1882	경북 영덕	징역 5년, 옥중 순국	애족장(2006)
배상일(裨相一)	1889	전북 정읍	징역 2년	건국포장(2011)
황의봉(黃義鵬, 黃河龍)	1890	전북 정읍	징역 3년	대통령표창(2009)
손양중(孫亮中)	1891	경북 의성	(1921년 징역 1년)	대통령표창(2009)
정명섭(丁明燮, 丁普燮)	1892	강원 영월	징역 1년	건국포장(2009)
김언수(金彦洙, 金千日)	1894	전북 정읍	징역 4년	애족장(2002)

\*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이상의 두 비밀결사에 참가한 인물의 출생 시기를 보면, 1880년부터 1908년 사이로서 주로 1880~9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1940년을 기준으로 보면 40~60대의 중장년층에 해당된다. 대체로 이들은 과거 20~40대에 3.1 운동을 맞았을 터인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거나 목격한 직

30) 이들도 2~3년간 고초를 겪은 후 다수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한편 조규태는 조선건국단에 대해 "이 단체는 독립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항일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제가 우리의 종교조직을 와해시킴으로써 민족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확대하거나 조작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았다(『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Ⅳ)』(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344-345쪽, '조선건국단' 항목).

간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이들은 모두 보천교도가 되어 비밀결사운동을 벌였다. 그러면 현재 판결문이 남아있는 ‘조선건국단 사건’을 통해 참가자의 직업과 학력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5〉 「판결문」에서 확인한 조선건국단 참여자의 이력

이름	연령	직업	학력	참고
신영화	61세	과일상	어려서부터 25세까지 한문 공부	명망가 출생, 재산 상속했으나 40세에 탕진, 생계 곤란
황의봉(黃河龍)	54세	농업	8~16세 서당에서 한문 공부	28세부터 보천교 신자, 차경석 등과 불화로 탈교
김형뢰(金炯雷)	54세	농업	5년간 한문 공부	재산 250원, 소작농, 빈곤
이명하(李命夏)	52세	농업, 노동	2년간 한문 공부	
정명섭	51세	농업	5년간 한문 공부	소작농, 빈곤
조순범(趙順範)	51세	농업, 목수	무학	
조홍식(趙洪植)	50세	농업, 주류판매	5~6년간 한문 공부	재산 1,500원
이종석(李鐘碩)	49세	농업	16세경 6개월 한문 공부	빈곤가 출생, 소작농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42.9.22.); 「判決文(黃河龍)」(全州地方法院, 1943.10.30.)

\* 연령은 재판 당시의 연령임. 한자를 병기한 인물은 현재까지 서훈을 받지 않았음

조선건국단에 참여한 위의 8명은 대부분 50대로서 모두 韓末 이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문맹은 아니어서, 대부분 유년시절 향리의 書堂 등에서 5~6년 이상 수학했다. 특히 결사의 지도급 인사이자 연장자인 申永和는 대한제국의 文官이 되기 위해 25세까지 거의 20년간 漢文과 漢學을 공부했고, 황의봉도 16세까지 한학을 공부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문과 儒敎 經典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과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말의 서당이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과도기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 대부분의 서당은 크게 보면 조선시대 서당과 차이가 없는 편이었다.<sup>31)</sup> 특히 1900년대 이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주요도시를 제외하면 ‘개량서당’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189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은 科擧 즉 지방에서의 初試와 鄕試를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후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은 완전히 생소한 西學 계통이기보다는 東學 계통과 더 친연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명망가 출신인 신영화를 제외하면 거의가 빈곤한 소작농 출신이었다. 또 활동 당시 이들의 경제적 수준도 자산 1,500원을 가지고 주류판매업도 겸한 趙洪植을 제외하면 모두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경제적 처지와 앞서 살펴본 지적 수준이 이들을 보천교 계통의 조선건국단이라는 종교결사로 이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IV.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 세대의 비밀결사

위에서 살펴본 2건의 비밀결사를 제외하면, 전시체제기 전북지역의 비밀결사는 모두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을 받은 청년세대가 결성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총 16건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7건, 이리가 3건, 김제가 1건, 순창·고창·남원·옥구에서 각 1건,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사례가 1건으로 조사되었다.<sup>32)</sup>

<표 6> 청년학생층에 의한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 현황

	명칭	시기	지역	관련인물	구성 및 조직	취지 및 활동	출전
1	‘대야보 동학교 동창생 그룹’	1939.말 ~ 1941.10	옥구	高鍾根·韓大錫·金鍾喆·田起培 등	옥구의 대야공립 보통학교 동창생 중심 그룹	민족차별과 조선독립, 독립운동 방안 협의, 민주로 가서 독립운동 매진	판결문 (전주지법, 1941.12.30.)/ 독립운동사 8-9

31)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서해문집, 2018), 120쪽.

32) 변은진, 앞의 책(2018), 128-133쪽을 토대로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예컨대 ‘대야보등학교 동창생 그룹’과 ‘전주사범학교 그룹’은 이 글에서 처음 추가되었으며, ‘남원 독서회’는 위 책에서 ‘전남’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했다.

2	(무명)	1940.3~1942.1?	전주	宋正燮·金炳化(점원)·趙南憲(회사원)·趙世庚(농업) 등	전주에서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 중심 문학, 법률 등으로 실력양성 분야 분담	결정적 시기 임시정부와 김일성군, 국내의 여운형 등이 호응해 봉기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실력양성	판결문(전주지법, 1944.6.12.)
3	權花會 ▼ ▼ 전주농업학교 학우회	1941.4~1943.12	전주	金相權·高炳直·林鎭旋·李璣雨 등	전주농업학교생 중심 총책 부책 조직·정보·교양담당 *전주농업학교 학우회로 개칭했다가 이후 조직을 이원화 함	목적: 민족의식 고취, 차별교육 심한 日人교사 배척운동, 담임 佐藤교사 배척 맹휴, 민족관 연구 수필 작성·배포(단군·태극기 풀이 등) 비밀수호·유사사 자결·징병제 시행에 따른 태도 정립, 전주 내 타 중학교와의 연계	전북지역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증언 자료집1 (김상권)
4	우리회	1942.6~1945.1	전주	曹泳徹·朴完根·金學吉·李東源·李壹男·李鍾沅·권상룡·金龍圭 등 19명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순창농업학교의 和寧會와 연결	민족의식 교육, 독서와 토론 활동, 강령 채택, 渡滿하여 독립운동하려고 실행	전주교육대학60년사/전북지역독립운동사/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이일남)
5	(무명)	1942.9~1943.10	고창	金芳洙·仙石善鎭·木原勇盛·仙石善鎭·新光容煥·吳近澤·存村義正 등	*1941.4부터 일본 도쿄 '아들(우리들)'의 姜壽元 지도, 조직 준비단계	일제패망과 조선독립 준비. 연극매우 김방수는 각지를 돌며 동지규합. 조선 역사극을 통한 대중의 민족의식 고취 준비	판결문(전주지법, 1944.9.25.), 공훈록
6	'전주북중학교 그룹'	1943.1~8	전주	金薰·河喜珠·金孝泳·朴潤河·최순기·김태기·김병순등	전주북중 교사 盧桓의 영향	고적답사, 시조연구 등 문학동호모임 일제패망 임박, 내선 일체 불가, 독립 추구	판결문/전북지역독립운동사/ 조선검찰요보8
7	白花團	1943.8~1945.5	김제	곽병철·박갑규·박정섭·강동열·장병식·곽규엽·곽철승·곽재승	만경보통학교 출신들 중심	동지규합, 징병 거부, 일본군 수송열차 습격 모의	전북도민일보 (1993.10.5., 2007.4.1)
8	事民團	1943~1944.11	이리	金直洙·張二圭 등 이리농림학교생 중심	* 화랑회원들의 1년 선배 조직. 화랑회와 함께 '독립전투당' 조직	변산봉 광산의 폭약 등 탈취, 만경교 폭파 등을 통한 무장봉기 계획. 계획 실행 중 검거	이리농림50년사/ 일제하의 항일학생운동 (최근무)

9	花郎會	1943~1945.4	이리	李相云·張志煥·金九·扈仲基·金直洙·徐基容·姜東錫·朴基春 등 100여 명 * 이상운은 고문·사망	이리농림학교생 중심 대표 : 이상운 조직책 : 장지환·서기용 훈련책 : 김영준 선전의교책 : 김구 기울책 * 事民團 등과 협력, '독립전투당' 조직	민족서적 탐독, 민족의식 고취, 무력봉기, 일인 광산·주재소·경찰서(금구경찰관 주재소) 습격, 만경교 폭파 계획 징용·징병거부, 총기 조종술, 불굴의 체력 단련, 지도인사 추대	독립운동사 9/ 이리농림50년사/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0	'전주사범학교 그룹'	1943.8~1944.2	전주	黃龍順·柳鍾滿·西原相大·松岡壯昌·富永甲洙 등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同校 雇員 황용순의 지도 독서회 성격	독서토론, 독립국 조선과 내선일체의 허구성을 밝혀 민족의식 고취, 만주 김일성과 연계해 독립운동 매진, 소일전쟁 개전과 일제패망에 대비해 독립운동 결의	판결문 (전주지법, 1944.11.27.)
11	石榴會	1943.10~1945.2	전주	曹泳徹·任在赫·朴鍾漢 등 6명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민족성 제고, 독서 교류, 「石榴 3호」까지 발간	전주교육대학60년사/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2	和寧會	1944	순창	李熙東·홍석길·이희동·민병호·진강욱·洪沅杓·曹泳徹·洪性吉·金永圭 등 80여 명의 순창농업학교생 중심	*金果國民學校 재학시 교사 朴來殷의 영향 받은 10여 명 중심 * '화령'은 이성계의 탄생지인 한경도 영흥의 옛 지명 *전주사범 '우리회', 광주의 '무등독서회' 등과도 인적 연계	조선독립·민족정신 고취, 국외 독립운동과 긴밀한 연계, 모든 기회 이용한 항일, 일제 타도의 선도적 역할 수행. 古事通 등 역사서·소설 탐구, 징용·징병 기피 계몽, 공출 반대 계몽, 현금헌납 계몽, 주재소 습격 계획, 상해 임정 및 광복군 가담 계획	전북지역독립운동사/순창군지/전주교대60년사
13	전주사범학교 독서회	1944.4~1945.2	전주	安鎰·韓七錫·白鎭禹·최상호·김봉욱 등 전주사범학교생 중심		3·1운동 기념으로 학생독립선언문·태극기·애국가 제작	전북지역독립운동사/공훈록
14	'남원독서회'	?~1945.5	남원	장홍식·노상인·정영필·정인호·박주영 등		독서모임	남원지/남원항일운동사

15	湖南會	?~ 1945.6	이리	尹容燮·朴賢植·裴鍾善등	이리초등학교 동기생 중심	전신주 등에 '조선독립보아라'라는 빠라부착, 미군 상륙에 대비하여 영어 공부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6	普光黨	1945.3 (결성)- 8	전라도 경상도	河準洙 등 징병·징용 거부자 73명	덕유산·지리산· 長安山(전북)·백 운산(경남)·掛冠 山 등 산악지대	행동목표 전쟁 방해, 당원 훈련, 연합군 상륙 시 호응토록 준비, 火田 및 군사훈련, 무기(주로 엽총) 매입, 화약 제조, 주재소 습격 등으로 총기 탈취	新天地 1권 3-5호(1946)

\* 위의 명칭에서 홀따옴표( )를 친 것은 모임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임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다수가 태평양전쟁기(1941.12~1945.8)에 결성되어 활동했다는 점이다. 위 표를 보면 두 건(1-2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이 모두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에 중점적으로 활동했다. 淳昌의 和寧會와 인적 연계를 갖고 활동하던 無等讀書會를 제외하면 모두 중일전쟁기(1937.7~1941.12)에 조직된 전남의 비밀결사운동과는 매우 대조적이다.<sup>33)</sup> 이 시기 국내 비밀결사운동에서 전북지역처럼 태평양전쟁기에 높은 조직율을 보인 지역은 경상남북도와 황해도뿐이었다. 강원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부지역은 중일전쟁기에 조직된 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서울과 경기, 충청남북도 등 중부지역은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sup>34)</sup>

전북에서 태평양전쟁기에 결성된 비밀결사가 훨씬 많았음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는 중일전쟁기에 비해 일제의 인력수탈과 몰자수탈이 한층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선인의 친일협력이 강화되어 조선인의 내면에서 일제의 침략전쟁과 전시수탈, 일제협력세력에 대한 민족적 반감과 민족의식이 더 높아졌다. 둘째, 일제의 침략전쟁이 미-일 전쟁으로 확대되고 또 소-일 개전의 전망도 가시화되면서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대한 희망이 보다 뚜렷해져갔고, 이에 군수생산력과 군

33) 변은진, 같은 책(2018), 130-133쪽의 <표3-6: 전라남북도의 항일비밀결사운동> 참조. 이 책에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전라도로 파악하여 타 지역처럼 '반반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는데(129쪽), 전라남북도를 분리해보면 이같이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34) 같은 책에서 차례로 경상남북도(112쪽), 황해(177쪽), 강원도(99쪽), 평안남북도(154쪽), 함경남북도(165쪽), 서울(78쪽), 경기도(93쪽), 충청남북도(148쪽) 참조.

수시설의 파괴 등 일본의 敗戰을 앞당기려는 구체적인 실천이 증가했다. 셋째, 이러한 일제패망 인식의 확산은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국내외가 호응해 조선을 독립시킬 준비를 본격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무장봉기와 실력양성을 위한 조직화가 본격화되었다. 넷째, 비밀결사 내에서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는 미래사회를 짚어지고 갈 차세대인 청년학생의 책무라는 과제가 등장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청년학생 중심의 소규모 비밀결사 형태로 확대된 전북의 비밀결사운동은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 참여자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아래 첫 번째 표와 같다. 그리고 오늘날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정리한 것이 아래 두 번째 표이다.

〈표 7〉 청년학생층의 비밀결사운동 참여자 중 서훈자

관련 결사	이름	출생연도	본적	서훈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	고종근(高鍾根)	1923	전북 옥구	애족장(1990)
	한대석(韓大錫)	1923	전북 옥구	대통령표창(1992)
(무명)	김병화(金炳化)	1922	전북 전주	애족장(2011)
	조남헌(趙南憲)	1923	전북 익산	애족장(2013)
근화회(槿花會)	김상권(金相權)	1924	전북 순창	애국장(1990)
우리회	이일남(李壹南)	1925(생존)	충남 금산 <sup>35)</sup>	애족장(1990)
(무명)	김방수(金芳洙)	1916	전북 고창	애족장(2009)
‘전주북중학교 그룹’	노환(盧桓)	1916	전북 익산	애국장(1990)
	최순기(崔淳基)	1924	전북 전주	애족장(1990)
	박윤하(朴潤河)	1925	전북 완주	애족장(1990)
	김명순(金炳純)	1926	전북 김제	애족장(1990)
화랑회(花郎會)	이상운(李相雲)	1927	충북 청원	애국장(1991)
‘전주사범학교 그룹’	황용순(黃龍順)	1924	전북 전주	애족장(2018)
	유종남(柳鍾南)	1927	전남 담양	애족장(2018)
화령회(和寧會)	이희동(李熙東)	1925	전북 순창	애족장(1990)

	홍완표(洪玩杓)	1927	전북 순창	대통령표창(2001)
	이학진(李學鎭)	1927	전북 순창	대통령표창(1995)
전주사범학교 독서회	백진우(白鎭禹)	1922	황해 신천	대통령표창(2005)
	한칠석(韓七錫)	1923	전북 옥구	대통령표창(2005)
	안일(安鎔)	1924	전북 진안	대통령표창(1997)

\*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 및 『공훈록』에서 확인(2019년 9월 검색)

<표 8> 「관결문」에서 확인한 비밀결사운동 관련자의 이력

관련 결사	이름	연령	학력	직업	출신
'대야보통 학교 동창생 그룹'	고종근	19세	중학(도쿄) 재학	학생	중류 농가
	한대석	19세	농림학교 재학	학생	중류
	김종철(金鍾喆)	19세	농림학교 재학	학생	부유(옥구)
	전기배(田起培)	19세	중학(서울) 퇴학	농업	부유(군산)
(무명)	김병화	23세	야간 상과 수료	연탄상 사무원	細農
	조남헌	23세	공업전수학교 졸업	雇員, 회사원	토지측량업자
	송정섭(宋正燮)	24세	보통학교 졸업	점원	중농(전주)
	조세경(趙世庚)	22세	공업전수학교 졸업	고원, 농업	소작농(김제)
근화회	김상권	21세	농업학교 재학	학생	중류 농가
우리회	이일남	21세		특수인부	
	양병초(梁炳初)	20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부안
	안등(安登)	21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진안
	박충수(朴充修)	21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부여
	임효신(林孝信)	22세		고원	전주
	김신무(金信武)	21세		연성소 보조	익산
(무명)	김방수	29세	보통학교 졸업	회사원	농가
	'전주북중 학교 그룹'	최순기	21세	영어학교(도쿄) 중퇴	고학생, 무직
박윤하		20세	중학교 재학	학생	부유
김병순		19세	중학교 재학	학생	중농

35) 금산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라북도였다가 1963년부터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노환	29세	사범학교 졸업	축탁교원	중농(익산)
'전주사범 학교 그룹'	김태기(金泰基)	19세	중학교 재학	학생	중농(김제)
	황용순	21세	보통학교 졸업	교원	빈곤
	유종남	18세	사범학교 재학	학생	소농

\* 비밀결사 차례로 全州地方法院의 「判決文」(1941.12.30. / 1944.6.12. / 1944.4.22. / 1945.6.17. / 1944.9.25. / 1944.6.12. / 1944.11.27.)에 의거함

\* 연령은 재판 당시의 연령임. 한자를 병기한 인물은 현재까지 서훈을 받지 않았음

위의 표를 보면 이들은 모두 1919년 3.1운동 이후에 태어나 주로 1920년대 후반 이래 일본식 學制가 요구하는 제도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대부분 자신의 고향에서 공립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한 경우이다. 이들은 전시체제기에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그리고 진학 또는 취업의 과정을 통해 민족차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20세를 전후한 1940년대 전반기에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꾸려 서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들에게 3.1운동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생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비밀결사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3.1운동 관련 이야기를 접하고 함께 학습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일제의 교육과정에서 '內鮮一體'를 슬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속에서 이것이 '空文句'나 '식민지적 기만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sup>36)</sup>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조선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독립의 길밖에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sup>37)</sup> 과거의 조선은 일본과 같은 독립국이었고 강제병합 이후 이를 벗어나기 위해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청년세대는 충분히 고무될 만했다.

이러한 자각은 직접적인 실천운동의 모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安鎰 등의 '전주사범학교 독서회'에서는 1944년 10월경 3.1운동 때 처

36) 일본질소광업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광업소에 근무하면서 金彩瀾 등과 함께 白衣會에서 활동한 金源植(전주, 22세)의 언급에서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1.11.27.): 『한국독립운동사』 5, 528-530쪽,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2(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김채룡 인터뷰.

37) '전주북중학교 그룹'의 최순기는 "입으로는 내선일체를 부르짖지만 무엇이 내선일체란 말인가? 내지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들이 일본에 여행하려면 마치 외국을 가는 것과 같이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한국독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全北地域獨立運動史』, 530쪽).

럼 직접 1945년 3월 1일을 기해 「독립선언문」을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직접 초안을 작성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치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인쇄했다가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sup>38)</sup> 또 전주농업학교 학생들 중심의 權花會에서는 순창의 龜巖寺 주지 金鍾悅의 도움으로 檀君과 태극기 등에 관한 뜻풀이가 게재된 30쪽 가량의 수필집을 등사해 배포하기도 했다.<sup>39)</sup>

그런데 청년학생들이 3.1운동을 이해하면서 접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운동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한 청년학생들이 주목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정도이다. 첫째, 과거의 조선민족은 단결심과 통일성이 부족했고 민족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sup>40)</sup> 둘째, 과거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당면한 시기는 조선인이 단결해서 대응한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 名古屋에서 고학을 하던 金炳舜(완주, 21세)은 다음과 같이 독립운동을 선전하면서 동지를 규합했다.<sup>41)</sup>

내선일체 같은 것은 일본정부의 표면상 표어에 불과하고 조선민족을 이러한 곤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고 단정하여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또 과거에 있어서 조선독립운동이 불성공으로 마친 것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현하 일본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의하여 국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영·미 등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강화에 의하여 일본은 패전에 빠질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봉기하면 독립은 가능할 것이다.

38) 『全北地域獨立運動史』, 547-549쪽; 『독립유공자공훈록』 14(2000), ‘안일’ 항목.

39) 『全北地域獨立運動史』, 512-516쪽.

40)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군산 출신으로서 서울의 문화중앙원에 다니던 이준호는 1943년 11월 동료 학생들에게 과거에도 安重根·尹奉吉 등 위인이 있었으니 본받아야 한다거나, 또 강제병합을 반대한 조선인이 독립문 벽에다 머리를 찢어 血書를 쓰고 죽은 사실 등을 선전하고 다녔다(『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23쪽).

41)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238-1239쪽. 김병순(위 ‘전주북중학교그룹’의 金炳純과는 다른 인물로 보임)은 1941년 10월 4일 일본 경시청에 검거되어 그해 말 도쿄형사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위에서 김병순이 말한 과거의 조선독립운동은 3.1운동을 가리킨다. 3.1운동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미와 함께 일본이 전승국으로 종전되어 민족자결 원칙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 ‘불성공’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되어 영·미와 대립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국제정세는 과거와 달리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독립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해서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정세관이나 독립방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3.1운동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학생들 중심의 비밀결사들은 크게 두 방향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했다. 첫째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식 고취를 통해 조선문화를 향상시키는 것, 둘째는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의 <표 6>만 보더라도 이러한 지향과 활동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타 지역에서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한 전북인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먼저 서울 中東學校에 재학 중인 李完基(무주, 18세)는 1940년 7월 같은 하숙집의 朝鮮文化學院 生도 孫龍祐(18세)에게 “우리 조선인은 조선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재학 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는 농촌청년을 지도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민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해 9월에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사립학교 생도는 모름지기 朝鮮魂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군사교련이나 지원병제도를 반대하지만 만약 지원병으로 가더라도 절대 “조선혼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sup>42)</sup> 또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전북에서 산업기수로 근무한 林鳳鎬(순창, 26세) 등 5명은 1941년 8월경

42) 이완기의 지도에 큰 감화를 받은 손용우 등 문화학원 학생들은 그해 10월 1일 이른바 일제의 施政記念日을 기해 사직공원 입구에 있는 京城府 國勢調査 광고관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낙서를 하여 일제경찰을 초진장시키기도 했다[「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40.10.31.)]; 「治安維持法違反及保安法違反ニ造言蜚語事件檢舉ニ關スル件」(1940.10.31.), 「文化學院並中東學校 生徒等ノ不敬及不穩行動ニ關スル件」(1940.11.4.), 「文化學院生徒ヲ中心トスル民族運動事件ニ關スル件(第五號)」(1940.11.4.), 『思想ニ關スル情報』 12].

“우리 조선인은 어떤 일에서도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無望하므로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도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각오를 다지다가 검거되었다.<sup>43)</sup>

다음으로 두 번째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 준비’ 역시 앞의 <표 6>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야보통학교 동창생 그룹’의 高鍾根 등은 1940~41년경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하면서 ‘만주국’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무기 입수 등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만주로 건너가 ‘匪賊’이 되어서라도 蔣介石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에 매진하자고 했다.<sup>44)</sup> 또 송정섭·김병화·조남헌·조세경 등 전북 출신 직장인 그룹에서는 임시정부와 ‘金日成軍’, 국내의 呂運亨 등이 기회가 오면 서로 호응해 봉기할 것이므로 그때에 대비해 조선청년은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합의했다.<sup>45)</sup>

전주사범학교의 ‘우리회’ 회원인 李東源·朴完根·金學吉 등은 국외의 독립군과 접촉하고자 직접 만주 吉林省으로 건너갔는데, 현지에서도 여의치 않자 그곳 일어강습소 강사로 위장하여 조선인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또 이리농림학교의 花郎會에서는 1943년 5월 별도로 ‘독립전투당’을 조직해 본격적인 무력항쟁을 계획했다. 이들은 母岳山에 있는 고갈봉(변산봉) 광산에 들어가 화약을 탈취하고 금구주채소와 김제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한 후 만경강 철교를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이들은 우선 선행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징용과 징병에 응하지 않도록 권고·만류한다, 둘째, 유고시에 대비하여 총기 다루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일본 경찰과의 전투를 가상하여 불굴의 체력단련 등에 역점을 두어 부단히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인사의 추대를 서둘러야 한다.’ 등을 결정했다.<sup>46)</sup>

43) 『한국독립운동사』 5, 581-583쪽.

44)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1.12.30.).

45)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6.12.).

46) 변은진, 앞의 책(2018), 139쪽(우리회) 및 147쪽(화랑회).

## V. 세대별 성격과 민주주의적 한계

전시체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 참가자들의 주장이나 활동, 또 이 시기 전북인의 ‘불온’한 유언비어나 낙서 등은 그 내용과 성격 면에서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비밀결사운동의 세대별 주도층에 따른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첫 번째는 일제의 패전을 중국의 승전과 연결시켜 사고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舊韓國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맥락으로서 주로 기성세대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전쟁의 종결을 일제의 패망으로, 이를 조선의 독립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조선인의 자각과 자력에 의한 신조선 건설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맥락으로서 주로 청년세대의 인식이다.

먼저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에 태어나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보았던 김제역 공중변소의 ‘鮮亡於日本, 日亡於支那, 胡亡於朝鮮’이라는 낙서나 보천교 계통의 神人同盟이 鄭氏 정통의 독립국가를 꿈꿨던 데서 잘 알 수 있다. 위의 문구는 이 시기 민간에 널리 퍼진 『鄭鑑錄』에서<sup>47)</sup> 나온 것인데, 농민층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는 주로 『정감록』의 특정 語句를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연결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1941년 노병준(盧秉俊, 익산, 무직, 45세)이 유포했다는 아래의 유언비어 역시 위 낙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48)</sup>

세계는 일대 전환기로 일본이 連戰連勝한다 할지라도 영웅 蔣介石의 전술로 일본군을 奧地로 끌어넣는 戰計에 불과하다. 장제스의 실력은 세계를 상대로 할 정도로 강경 충실하여 수년 내에 일본의 패전은 명확하고, 현재 ‘鮮亡於日 日亡於胡 胡亡於朝鮮’이라는 정감록의 비법에도 일본은 중국에서 패전하여 乙酉年(1945년-필자)이야말로 조선이 독립하고 東洋을 통치할 것이다.

‘鮮亡於日, 日亡於胡, 胡亡於朝鮮’이라는 구절은, 비록 조선이 일본에

47) 일제말에 전파된 『정감록』은 ‘鄭鑑錄’만이 아니라 ‘鄭堪錄, 鄭堪錄, 堪論抄, 石書, 朝鮮寶鑑, 歷歲要覽, 徵秘錄(徵秘錄이 아님)’ 등의 명칭으로 나뉘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종류이나 내용상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思想彙報』 23(1940.6), 211쪽].

48)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警務局, 1941.12).

망해서 강점된 상태이지만 중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당대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영웅 장제스에게 결국은 패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을 胡 또는 支那라고 비하해 표현하면서 결국엔 조선에 망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의 ‘小中華’ 의식과 봉건적인 전제군주제의 패권 의식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正學으로 일컬어지던 전통적인 性理學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성격을 더 강하게 지녔다.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과 파시즘, 가뭄과 수탈, 곤궁한 생활과 불투명한 미래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들이 학습한 유교적인 전통 논리는 더 이상 현실성을 지닐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은 또 다른 전통인 ‘邪學’의 세계에 이끌렸다.

이들의 의식세계 내에는 여전히 ‘봉건성’이 일정하게 잔존해 있었고,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을 희구하더라도 그 인식의 기초에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틀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일제패망 후의 독립 및 건국 문제와 관련해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도 과거로의 회귀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이씨조선을 대체하는 ‘정씨조선’을 꿈꾸는 등 새로운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를 떠올리기는 어려웠다. 기성세대는 근대적인 民主主義나 共和主義와는 의식의 접점을 형성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49)</sup>

이와 같이 기성세대가 전시체제 하의 불안감을 주로 종교나 미신에 의존해 극복해보려는 경향을 지녔던 반면, 강제병합 이후 태어나 1920~30년대에 일본식 제도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년세대는 일본패전=일제패망, 조선독립과 사회혁명, 새로운 국가건설을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 태생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조건은 ‘忠良한 皇國臣民의 양성’이라는 일제 교육의 목표 아래 놓여 있었고 여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게다가 전시체제기 교육과정에서는 일제 침략전쟁과 파쇼화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논리적 구성과 형식이 강조되었고, 군사교련과 강제 근로동원 등도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생활화되었다. 대다수 청년들은 일제가 세뇌하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개인의

49) 이에 대해 일찍이 富田節子는 “공화제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을 민중으로서 조선독립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李朝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富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32쪽).

능력을 함양해 출세하기를 꿈꾸고 이를 통해 ‘국가(일본국)’와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강요받았다. 또한 기존에 조선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전통적인 忠孝 사상이나 가족 및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가치관, 즉 일본식 忠과 家の 개념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을 갖추기를 요구받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년세대 가운데 일부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일제의 ‘내선일체론’과 파쇼적 현실에 재빠르게 적응해갔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은 진학·승진 등의 현실 속에서 각종 ‘내선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 논리적 허구성을 강하게 반박하고 이러한 민족차별을 극복하는 길은 조선독립밖에는 없다는 의식을 키워간 경우도 많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자발적으로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청년세대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체계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실제 운동 과정이나 사상 면에서 여러 ‘미숙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인 배경은 이들이 ‘반일’과 ‘항일’의 저항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려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일본식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형식 등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90년대 이래 초등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파된 도덕 기준, 즉 ‘天皇’에 대한 忠誠, 부모에 대한 孝, 日本國體의 특수성 등 전통적인 관념이 철저히 심어져 있는 도덕의 기준이 있었고, 이는 침략 전쟁과 파시즘 체제의 개편에 대한 대중적 동원의 도덕적 기준으로 轉用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일찍부터 초등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식적인 도덕 기준’이 없었고 거꾸로 조선인 나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또 다른 ‘공식적인 도덕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다분히 조선적인 유학적 전통에 기초한 충·효 사상과 가족공동체 의식, 冠婚喪祭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에 깃들어 있었다.<sup>50)</sup> 때문에 일제당국은 조선청년을 전쟁과 파시즘에 동원하기 위해 더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국가주의 즉 ‘천황제 파시즘’을 주입하고 세

50) 예컨대 순창농업학교의 비밀결사 和寧會를 주도했던 李熙東은 향리의 名儒인 南波 薛鎮永의 義舉와 自盡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키우고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和寧은 조선 건국 후 李成桂가 명에 보냈던 國號의 하나로서 이성계의 탄생지인 함남 永興의 옛 지명이기도 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和寧臣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全北地域獨立運動史』, 532-538쪽).

너했다. 대중정당과 1인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파시즘과 달리, 외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철저하게 지배층 주도로 형성된 ‘친황제 파시즘’은 “대중 레벨의 민주주의적 해방이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민주권을 원리적으로 확립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sup>51)</sup>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학생들이 제도교육 속에서 보고 배운 ‘일본민족의 우수성’의 내용과 그 설파 논리는 현실의 ‘내선차별’을 경험하면서 거꾸로 ‘조선민족의 우수성’에 주목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들은 현실의 조선인은 민족적 자각이 부족해서 일본의 屬國이 되어 일본인으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과거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선인의 민족적 자각과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청년학생들의 비밀결사는 바로 이를 모색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조직적 주체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故事通』, 『端宗哀史』, 『王子好童』 등의 역사서나 『三千里』, 『新東亞』 등의 한글잡지를 읽었다. 또 일본과 전쟁을 치룬 역사적 경험인 壬辰倭亂 당시의 李舜臣이나 西山大師의 활약상 등을 종종 거론했으며, 寺刹이나 古蹟地를 답사하고 時調나 漢文 연구를 위한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다.<sup>52)</sup> 일제가 한복에 웃고름 대신 단추를 달라고 하자 웃고름을 지키는 운동 등의 사소한 데서부터 앞서 보았듯이 태극기나 애국가, 3.1운동을 기념한 학생독립선언문을 제작·배포하는 적극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천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족과 민족문화는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고유한 독자성이 있고 이는 일본민족의 문화보다 더 우수함을 입증하려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일반 민중들에게도 전파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민족의식을 설파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일제가 일본식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즉 ‘일본주의’를 설파하는 논리가 借用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민족의식이 극단적으로 복고적이고 국수적인 경향으로 경도되도록 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조선인의 민족주의에 국수주의나 국가주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배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더구나 反日의 저

51) 山口定, 『ファシズム - その比較研究のために』(有斐閣, 1979), 192-193쪽.

52) ‘전주북중학교그룹’의 河喜珠·金孝泳 등(『全北地域獨立運動史』, 521쪽).

항성이 상실되고 反共의 논리만이 급부상한 8.15 이후의 달라진 정세에서 이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로 전면화 될 수도 있는 한계로 작용했다.

한편 일제말 전시체제기에 그나마 조선인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철저하게 ‘미국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한계이다.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국외의 항일무장세력이 국내로 진격해오면 국내의 민중들은 이에 호응해 ‘一擧에’ 민중봉기를 통해 일제 권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론’은 일제말 국내외 독립운동 진영 모두에서 일치되게 나타난 조선독립의 방략이었다. 이 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완전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었지만,<sup>53)</sup>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연합국 측의 지원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미국과 소련인데,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미·소 양국의 동시 지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당면한 미-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조선이 독립하리라는 예측이 많았던 배경도 있지만, 일제패망이 임박해지면서 1943년 무렵부터 미군이 전라북도에도 인접한 서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이라 풍문이 떠돌았기 때문인 것 같다.<sup>54)</sup> 미국의 지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sup>55)</sup>

일본이 패전하면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인을 증오하여 가혹하게 대우할 것이나, 우리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 대우에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미국인이 開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당에서 조선인과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은 조선을 보호하고 그 독

53) 예컨대 이리농림학교의 ‘화랑회’에서는 연합군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독립선언을 해야만 “속국이 아닌 떳떳한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全北地域獨立運動史』, 516-517쪽, 조직책 張志煥의 진술). 또 황용순 등의 ‘전주사범학교 그룹’에서도 “조선은 장차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손으로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신체를 단련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11.27)).

54) 예컨대 ‘전주부중학교 그룹’의 金燾는 1943년 6월, 미국이 서해안에 상륙할 때에 대비해 “그들과 사귀려면 영어가 꼭 필요하니 학생들은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리국민학교 동기생들 조직인 湖南會에서 1945년 6월경 배포한 빠리에도 미군의 서해안 상륙에 대비해 “영어회화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全北地域獨立運動史』, 549-551쪽).

55)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4.4.22).

립을 허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기회에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이 실현되면 우리 조선인의 행복도 초래됨은 물론이다. (1943년 9월 26일 전주농업학교 權花會의 金相權이 柳勝雄에게 한 말)

이처럼 전북의 청년세대가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미국에 집중되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배경 역시 38도선 이남에 美軍政이 설치되어 통치한 ‘해방공간’에서 대표적인 ‘미국계’ 독립운동가인 李承晩의 단독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그나마 ‘미국식 민주주의’만을 이상적 모델로 삼고서 여기에 三綱五倫과 같은 전통적인 몇 가지 유교적 통치이념을 소환시키는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요컨대 청년세대에게 주어진 일본식 제도교육이라는 환경은, 바로 이들이 독립국 조선을 꿈꾸면서 근대적인 국민주권과 국민국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사고할 때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성격의 한계를 가져다주었다. 청년세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접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기독교 등 종교사상, 기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제강점과 전시체제,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조건 속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體化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식 제도교육과 항일운동 과정에서 배태된 민족주의적 인식 기반의 여러 한계는, 이들이 민주주의 일반에 눈을 돌리기 어려운 태생적 조건과 한계로 작용했다. 더구나 이들이 민주주의를 사고할 때에도 다중의 의사 결집과 대표성,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 가운데 상대적으로 후자를 상실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말 전시체제가 전북인의 상황과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현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에게 일본식 근대 보통교육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비밀결사운동의 주체를

그 이전에 유교적 전통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와 그 이후 일본식 제도교육을 받은 청년세대로 구분해 양상과 성격을 검토했다.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과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현실 조건 속에서 강한 항일성과 민족의식을 지녔다 해도 민주주의적 한계를 드러냈음에 주목했다.

전시체제기 전북지역의 비밀결사운동은 현재까지 총 18건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 2건만 주로 1880~90년대에 태어나 한학과 유학을 습득한 기성세대 중심의 ‘유사종교’ 계통 결사이며, 나머지 14건은 1920년대에 태어나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세대 중심의 학생비밀결사가 대부분이다.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에서 보이는 특징은 첫째, 절대 다수가 일제패망에 대한 인식이 현실화되어간 태평양전쟁기에 결성되어 활동했다는 점, 둘째 타 지역에 비해 증산교·보천교 등 이른바 ‘민족종교’의 지역성이 강하여 ‘유사종교’ 계통의 비밀결사도 비교적 명확히 조선독립을 내걸고 활동했다는 점, 셋째, 일제패망과 조선독립, 신국가 건설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성세대의 의식세계에는 여전히 일정하게 ‘봉건성’이 잔존해 있었고,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을 회구하더라도 대체로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틀을 넘지 못한 인식을 보였다. 독립 및 건국과 관련해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도 이씨조선을 대체하는 ‘정씨조선’을 꿈꾸는 등 새로운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를 떠올리는 어려워, 근대적인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와는 의식의 접점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한편 일제의 ‘내선일체’를 비판하면서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한 청년세대라 하더라도, 이들은 ‘충량한 황국신민의 양성’이라는 일본식 제도교육의 영향과 사상적 한계 속에서 다분히 일본식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국수주의적 요소가 내재화한 민족의식을 형성해갔다. 이는 이들이 민주주의 일반에 눈을 돌리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로 작용했으며, 8.15 이후의 달라진 정세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전면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 &lt;국문초록&gt;

## 전시체제기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의 세대별 양상과 민주주의

변은진

전시체제기 전북지역의 항일비밀결사는 현재까지 총 18건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신인동맹과 조선건국단 2건만 주로 1880~90년대에 태어나 한학과 유학을 습득한 기성세대 중심의 ‘유사종교’ 계통 결사이며, 나머지 14건은 1920년대에 태어나 일본식 제도교육을 이수한 청년세대 중심의 학생비밀결사가 대부분이다. 전북지역 비밀결사운동에서 보이는 특징은 첫째, 절대 다수가 일제패망에 대한 인식이 현실화되어간 태평양전쟁기에 결성되어 활동했다는 점, 둘째 타 지역에 비해 증산교·보천교 등 이른바 ‘민족종교’의 지역성이 강하여 ‘유사종교’ 계통의 비밀결사도 비교적 명확히 조선독립을 내걸고 활동했다는 점, 셋째, 일제패망과 조선독립, 신국가 건설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성세대의 의식세계에는 여전히 일정하게 ‘봉건성’이 잔존해 있었고,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을 회구하더라도 대체로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틀을 넘지 못한 인식을 보였다. 독립 및 건국과 관련해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도 이씨조선을 대체하는 ‘정씨조선’을 꿈꾸는 등 새로운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를 떠올리기는 어려워서, 근대적인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와는 의식의 접점을 형성할 수 없었다. 또한 일제의 ‘내선일체’를 비판하면서 비밀결사운동에 참여한 청년세대라 하더라도, 이들은 ‘충량한 황국신민의 양성’이라는 일본식 제도교육의 영향과 사상적 한계 속에서 다분히 일본식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국수주의적 요소가 내재화한 민족의식을 형성해갔다. 이는 이들이 민주주의 일반에 눈을 돌리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로 작용했으며, 8.15 이후의 달라진 정세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전면화 되는 배경이 되었다.

주제어 : 전시체제기, 항일비밀결사, 소규모 비밀결사운동, 전라북도, 유사종교, 민주주의, 청년학생

<Abstract>

## Details and Nature of Secret organizations in Jeollabuk-do Province during World War II

Byun, Eun-Jin

The anti-Japanese secret organizations in Jeollabuk-do Province during World War II has been confirmed in 18 cases so far. Two of them were groups of 'similar religion' by the older generation who were born in the 1880s and '90s and learned to study Chinese classics and Confucianism. Fourteen of them were mostly student secret organizations by the younger generation who were born in the 1920s and completed Japanese systematic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ecret organizations in Jeollabuk-do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organizations formed and operated during the Pacific War, when Japan's defeat was confirmed. Second, the so-called 'Ethnic Religion' such as Jeungsan-gyo or Bocheon-gyo bridges are stronger than other regions, so that the secret groups of 'similar religion' were relatively clearly acted under the independence of Korea. Third, the expectation of the US is higher than other regions in the collapse of Japanese imperialism, Korea's independence,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country.

Keyword : World War II, anti-Japanese secret organization, Jeollabuk-do Province, 'similar religion', younger generations
---

## <참고 문헌>

### □ 사료

- 警務局 經濟警察課, 『昭和19年上半期國民徵用等勞務事犯取締狀況表』.  
京城地方法院, 「判決文」(1942.5.31.) / 「判決文(平山永和 外)」(1942.9.22.).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思想二關スル情報』 12(국사편찬위원회 소장).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1941) .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각호.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6(199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1977) / 별집3(197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2(2012).  
法務局 刑事課, 『經濟治安日報』 제60집(1942.6.29., 국가기록원 소장).  
水野直樹 編, 『戰時期 植民地統治資料』 4(柏書房, 1998).  
水野直樹 編,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각권(不二出版).  
全州地方法院, 「判決文」(1941.11.27.) / 「判決文」(1941.12.30.) / 「判決文」  
(1943.10.30.) / 「判決文」(1944.4.22) / 「判決文」(1944.6.12.) / 「判決  
文」(1944.9.25) / 「判決文」(1944.11.27.) / 「判決文」(1944.4.22.) / 「判  
決文」(1945.6.18.).  
全州地方法院 井邑支廳, 「判決文」(1944.10.9.).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1940).  
朝鮮總督府 法務局 經濟警察課, 『經濟治安日報綴』(국가기록원 소장).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外事月報』 제1호(1939.7).  
特高科,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1945,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 □ 단행본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1985).  
大江志乃夫 編, 『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不二出版, 198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Ⅳ)』(1996).  
文智炫,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고가 신종교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 변은진, 『과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선인, 2013).
- 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선인, 2018).
- 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아연출판부, 2004).
- 山口定, 『ファシズム - その比較研究のために』(有斐閣, 1979).
-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서해문집, 2018).
-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せきた書房, 1984).
- 全北地域獨立追慕塔建立推進委員會, 『全北地域獨立運動史』(1994).
- 井邑文化院, 『井邑抗日運動史』(1994).

□ 논문

- 文智炫,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고가 신종교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2016).
- 조규태, 「일제강점기 전북 고창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26(2012).
- 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大東文化研究』 72(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к с і